한국의학사 연구에 일생 바친 '삼목영'

글 _ 박성래 외대 사학과 명예교수 parkstar@unitel.co.kr

삼목영(三木榮, 미키 사카에, 1903~92)은 일본 사람으로 한국 의학사의 개척자다. 그가 남긴 '조선의학사 및 질병사'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우리 의학의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책이 될 것이다. 이 책과 어깨를 나란히 할 책으로는 물론 김두종(1896~1989)의 '한국의학사'를 들 수 있다. 이 두 책은 서로 대조적이면서도 일본어와 한국어로 쓰인 대표적인 한국의학사로 자리 잡고 있다. 일본 오사카 남쪽으로 이어진 도시인 사카이 출신인 그는 사카이중학교와 제7고등학교를 나왔다. 그리고 당시 일본 서쪽의 대표적 국립대학이던 규슈제국대학 의학부를 1927년 졸업하여 내과 의사가 되었다. 그는 졸업 후 바로 경성제국대학에 발령받아 조선에 부임하면서, 조선의학사 연구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1932년 의학박사 학위를 받고, 이듬해에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조교수가 되면서 그는 조선의 의학사에 눈을 뜨고 평생을 조선의학사 연구에 바치게 되었다.

김두종과 한국의학사 연구에 쌍벽 이뤄

그가 그의 책 서문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처음에는 일반적인 조선의 역사에 대해 책들을 읽고 연구를 시작했고, 이어서 의학 관련 자료 또는 사료를 섭렵하게 된다. 그런 가운데 그는 한국의학사 연구가 대단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전혀 연구된 일이 없다는 데 주목했다.

중국의학에 관해서는 천팡시엔(陳邦賢)의 '중국의학사'(1919)와 왕오량의 영문판 '中國醫史', 일본에서는 자신의 스승이기도 한 후지카와유(富士川游) '일본의학사'(1904) 등이 있었지만, 조선에는 아직 의학사가 전혀 정리되어 있지 않았다. 서문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미키는 바로 한국 의학사에서 중국의 천 팡시엔, 일본의 후지카와 유같은 대학자가 되기를 바랐던 것이었다. 그리고 어느 의미에서는 바로 이 목표를 달성한 셈이다.

물론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한국인으로 비슷한 업적을 세운 김두종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경상도 함안 출신인 김두종은 1924년에 일본 교토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한 뒤 1945년에는 만주의과대학의 동아의학연구소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해방 당시까지 그는 만주에서 일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의 전공 역시 한국의학사이며, '한국의학사'(1962)와 '한국의학사대연표'(1966)는 그의 야심적인 의학사 연구결과로 꼽을 수 있다. 이들 두 학자의 연구와 성과는 그들의 연구서 제목부터가 서로 비슷하다. 미키가 '조선의학사 및 질병사'(1955)와 '朝鮮醫事年表'(1985), 그리고 '朝鮮醫書誌'(1956)를 그의 3부작으로 꼽는 것과 비슷하게, 김두종의 앞의 두 가지 업적은 미키의 처음 두 가지와 일치한다. 김두종은 미키와는 달리 한국의 의학만을 조사하여 따로 책으로 내놓은 일은 없지만, 김두종의 '한국고인쇄기술사'는 적지 않은 의학서를 다루고 있어서, 미키의 '조선의서지'에 상응한다고도 할 만하다.

이처럼 두 학자의 연구는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 하지만 두 학자는 서로를 그리 친하게 여기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7세 연장인 김두종은 미키보다는 약간 늦게 의학사 연구에 몰두했고, 책도 조금 늦게 발행했다. 그 덕택에 김두종의 '한국의학사'는 이미 여러 곳에서 미키의 연구를 인용하고 있다. 또 미키 역시 그의 책에 붙인 서문에서 김두종에게 감사한다는 말을 넣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둘은 서로 경쟁하는 입장이어서 그리 친하게 사귈 수 없었을 것이다. 게다가 미키는 일본에서 정규 제국대학 의학부를 졸업하고 곧 조선에 들어와 경성제국대학에서 교수가 되어 활약했으니, 온갖 혜택을 다 누리며 학자 생활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김두종의 경우 일본의 교토부립의학전문학교를 나와서 바로 만주 하얼빈에 건너가 내과 의사로 일하다가, 1936년에야 만주의과대학의 동양의학연구소에 연구원으로 들어가면서 학문의 길에 본격 진입했다. 아무래도 서울에서 온갖 혜택을 누리며 한국 의학사를 연구한 미키에 비하면, 김두종은 한국 의학사 연구에 많은 불편과 불리함을 면할 수 없었을 것이다. 김두종은 해방 후에야 비로소 서울의대 교수로, 의학협회 회장, 숙명여대 총

장, 성균관대 이사장, 과학사학회 회장 등 온갖 영예를 누렸다.

자비로 '조선의학사 및 질병사' 출간

미키의 3부작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조선의학사 및 질병사'는 1955년 12월에 100부만 출판되었는데, 자비로 출판해, 자가판이란 설명이 붙어있다. 작은 책의 두 배 크기 판(B5판)으로 총 1천540쪽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물론 여기에 도판 3, 부표 14 등이 붙어 있었다. 그 후 수정판이 활자로 정식 인쇄되어 보급되었다. 1962년 수정판은 같은 크기인데, '조선의학사'가 본문 403쪽, '조선질병사'가 본문 123쪽이다. 여기에 여러 가지 부록이 많이 붙어 책은 훨씬 두꺼워졌다. 흥미로운 것은 책 끝에 이 책 역시 500부만 한정으로 출판했다고 밝힌 점이다. 출판사가 돈을 대지 않아서 역시 자비로 책을 낸 것이다. 필자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마도 한국에서 뒤에 해적판으로 영인해 낸 것으로 보인다. '조선의서지'는 1956년 10월 역시 B5판으로 출간되었다. 도판 80, 부표 3, 총 540쪽으로 120부를 역시 자비로 발행한 것이었다. 원래 '朝鮮醫籍考'라는 제목 아래 '중외의사신보' 등에 연재했던 원고를 정리한 것이다. 그는 이 연구를 1932년 11월에 시작하여 1935년 1월까지 연재 발표했다. 1944년 수원도립병원장을 떠나 귀국한 다음 오랫동안의 추가 연구를 거쳐 1956년 책 모양을 갖추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의사연표'는 이미 해방 전에 대강의 원고가 완성되었지만, 제대로 책으로는 내지 않고 있다가, 1985년 6월 그는 이 책을 마지막으로 출간함으로써 그의 조선의학지 3부작을 완간한 것이다. 마지막 책의 서문에서 그는 "나는 1928년 처음으로 한국의학사 연구를 시작한 이후 마치 연인을 생각하듯이 이 일에 열심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정말로 그의 일생은 한국 의학사를 위한 것이었음이 분명하다. 수원 도립의원 원장을 끝으로 공식적 자리를 떠난 그는 1944년 귀국하여 고향 사카이시의 집에서도 연구를 그치지 않았다. 전쟁 막판의 온갖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의 연구는 계속된 것이다. 실로 학자로서의 미키는 대단한 의지와 집념을 가지고 한국의학사를 연구했고, 또 그의 연구 성과에 대해 크게 자랑스럽게 생각한 것이 분명하다.

이런 연구를 통해 그는 한국의학사에 관해 다음 8가지를 주장하고 있다. ①고대 삼국의 의학은 중국의 영향 아래 성장하여 일본에 큰 영향을 주었다. ②중국 송(宋) 나라 때 의학서와 약재는 고려 의학을 풍부하게 했다. ③조선 초기 '향약집성방', '의방유취'와 다른 의서의 발간은 한국의학사의 최성기를 보여주며 그것은 일본과 중국 의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④조선 전기에 발달한 종기 치료방법은 조선의 독특한 것이다. ⑤'동의보감'은 일본과 중국에서도 이용된 명저로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⑥임진란 때 조선의학은 일본에 전해져 큰 영향을 주었다. ⑦조선의 전염병 유행은 일본과 연계되어 있어서 연관된 연구가 중요하다. ⑧동아 3국의 의학서는 사라진 경우 등이 있어서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한국 의학사를 '동아시아 3국 연결고리'로 강조

그는 주로 한국 의학사를 동아시아 3국 의학사 연구에 필요하다는 점에서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그는 이런 입장에서 한국의학사가 중국 의존적이라는 측면을 너무나 강조했다. 또 일제 시기 동안 일본의 근대의학이 한국에 크게 중요한 역할을 한 것처럼 말하고 있기도 하다. 그는 "不通朝鮮醫學 不可以說日本及中國醫學(조선의학에 통하지 않고서는 일본과 중국 의학을 말할 수 없다)"고 단언하면서, 이를 일부러 한문식 표현으로 서문에 써놓고 있다. 한국의학사를 동아시아 3국의 연결고리로서만 강조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1962년의 '조선의학사 및 질병사' 개정판 서문에서 그는 "20년의 연구 기간이 한 순간처럼 느껴진다"며, 고마운 이들의 이름을 적고 있다. 일본의 역사학자 등이 나열되었는데, 그 가운데는 한국인의 이름도 있다. 이태호, 이능화, 김돈희, 송석하, 박봉수, 지석영, 최남선, 장지태, 정인보, 이인영, 황의돈, 이병도 등이 들어있다. 그리고 개정판에 붙이는 24명의 고마운 사람 명단 가운데 유일한 한국인으로 김두종이 들어있다. 또 여기에는 당시 서울대 교수였던 이병도의 서문도 있다. 그는 "외우 삼목영 박사가 젊은 날의 대부분을 한국에서 지냈는데 헌신적이고도 희생적 노력으로 이 책을 썼다"고 서술하고 있다. 또 그는 "1876년 한·일 회담이 열렸을 때 일본의 궁본(宮本)이사관이 '의방유취' 266권 264책을 가져왔는데, 이는 에도 말기 호고독지(好古篤志)의 의가(醫家) 희다촌직관(喜多村直寬)이 조선 초기에 편찬 간행된 천하무비의 의학의 대보감을 자가에서 복각한 것"이란 대목을 이 책에서 인용하고 있다. 이병도는 다시 한·일회담이 열리는 때에 미키의 책이 나오게 된 것을 축하하고, 그 학문적 기여함이 크다고 설명하고 있다. 젊은 의학사 학자 신동원은 최근 그의 논문 '미키 사카에의 한국의학사 연구'에서 "비록 식민지적 상황의 한계가 보인다고 해도 미키 사카에의 한국의학사 연구의 가치를 폄하해서는 안 될 것"이라 평가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오늘날 활성화하고 있는 한국의학사 연구에서 사실과 해석 및 평가의 70~80% 이상은 미키에게서 비롯한다는 것이다. ST